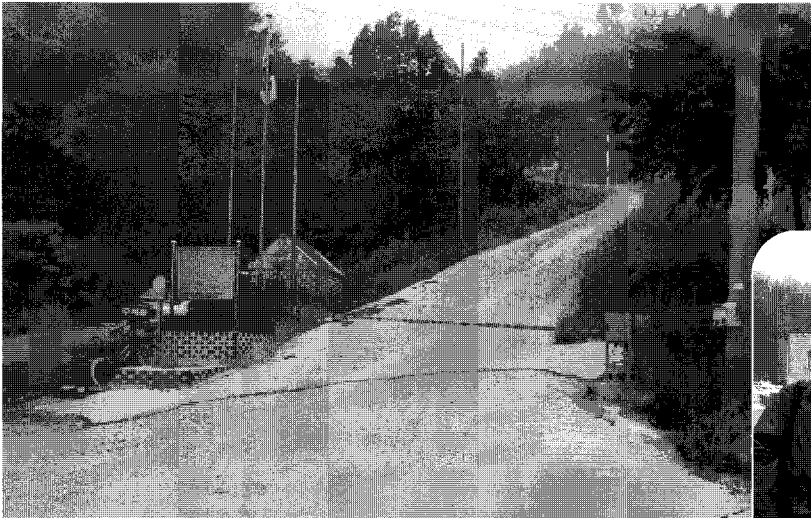


신념을 가지고 우수한 청정 종돈 공급하는 다비육종 청암GGP

- 취재 : 조진현



◀청암GGP 입구 전경

▼좌로부터 (주)다비육종 이일주 과장,
청암GGP 백영죽 사장, 박상범 농장장



월 20,000두의 모돈(F₁)을 전국 양돈장에 공급하고 있는 (주)다비육종은 경북 김천의 청암GGP 농장에서 순종(GP) 암돼지를, 경기 안성지역의 도화농장에서 순종 수돼지를 공급 받고 있다.

이렇게 공급받은 순종은 (주)다비육종 계열 7개 GP농장에서 잡종 교배(LY, YL)되어 연간 20,000두가 전국 양돈장에 공급되고 있다. 다비의 모돈은 비용은 다소 비싸나 높은 번식 성적과 증체율, 청결한 방역관리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종돈업의 한 획을 담당하고 있는 다비육종이 어떻게 종돈을 생산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경북 김천 청암GGP 영농조합법인(백영죽

대표)는 다비육종의 가장 육종학적 상위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청암GGP의 방역관리, 사양관리, 그리고 선발기준을 들어보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우수한 돼지 생산을 위한 청암GGP의 노력을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종돈의 현재를 짚어보자.

해발 530m의 천혜의 지리적 여건

청암GGP가 다비육종 GGP농장으로 선정된 데는 뛰어난 지리적 여건이 큰 몫을 담당했다.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해발 530m고지에 위치한 청암GGP는 인근 농가와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다.



양돈장 구조 또한 입구에서 돈사까지 눈으로 보기에도 아찔한 가파른 경사이다. 외부인들을 맞는 농장입구에서 2차 출입구는 보이지도 않으며, 돈사와의 경계를 위한 2차 출입구에서도 내부 돈사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오르내리기 힘들고 눈·비울 때 차량이동에 어려움을 겪지만 방역과 질병차단만큼은 확실한 것이 청암GGP이다.

2차 출입구를 통과하는 외부차량은 사료차뿐이며, 출하시에도 농장 입구에 따로 마련된 계근장까지 내부 차량으로 이동된다.

청암GGP가 이러한 방역상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소규모 종돈장과 인공수정 센터를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 백영죽 대표의 '정말로 우수한 종돈을 공급해 보겠다'는 개인적인 고집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현재 청암GGP에서 생산되는 순종돈의 수는 월 200두 정도, 연간 2,500두 정도의 원종(GP)을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는 100% 다비육종에서 담당하고 있다. 웅돈 및 비선발돈은 김천 롯데햄우유 육가공공장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월 850두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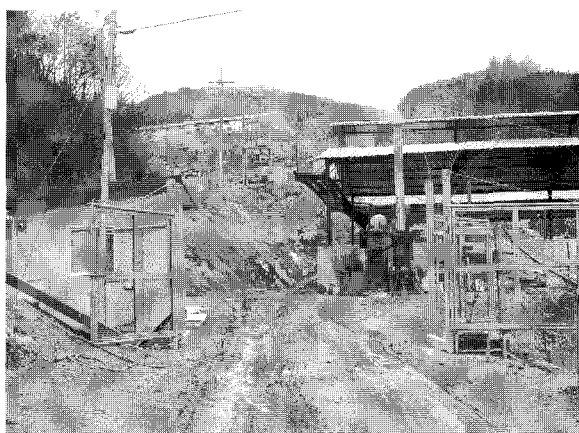
이유두수 9.9두, 분만을 87.2%의 비육농가보다 높은 성적

모돈 612두, 총 7,0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청암GGP는 1만평 부지에 건평 3,200평, 돈사 2,200평 규모이며, 무창돈사로써 A(번식사), B(자돈사, 검정사), C(검정사)동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돈사의 평수는 각 700여평이다.

1999년말 완공돼 2000년부터 입식을 시작한 청암GGP는 전문종돈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자금 22억원을 받아 시작하였으며, 총 자산은 40억 정도이다. (주)다비육종과의 계약에



▲농장입구의 1차 차단시설. 우측에 있는 것이 방문자 1차 소독시설.



▲농장내 2차 차량 소독시설. 저 멀리 뒤쪽에 돈사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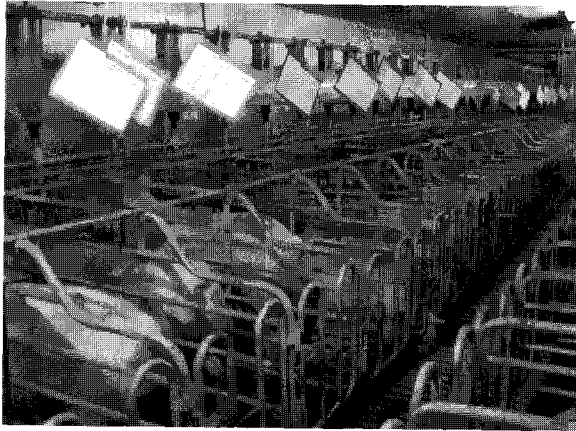
의해 종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이다.

농장 직원 수는 8명이다. 그 외 퇴비사, 외부업무, 경리업무에 각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청암GGP의 사양 성적은 주간 평균 이유자 24복으로, 평균 이유두수 9.9두, 분만을 87.2%, 모돈회전을 2.48, 7일 이내 발정률 93.5%의 높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 70일령 기준 평균 체중이 30kg에 달하며, 115kg 출하돈 도달일령이 175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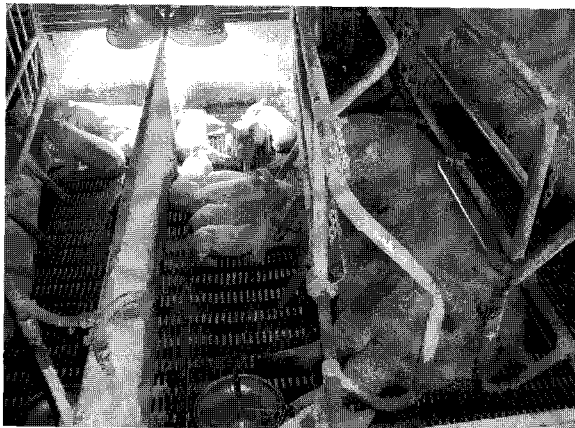
다만 총산자수가 12두인데 비해 실산자수가 10.8두로 10.2%의 다소 높은 분만 사고율을 보이고 있으나, GGP 농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성적이다.



▲청암GGP 모돈사



▲청암GGP 후보돈 방목장



▲청암GGP 포유돈사

폐쇄돈군을 구성하고 있는 순종돈이 이러한 성적을 나타낸다는 것은 실제 농장에 공급

되는 F1 모돈은 잡종강세의 영향으로 더욱 높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여건에 맞는 우수한 백색 모계계통 구성

청암GGP가 보유하고 있는 돼지는 90%가 요크셔(YT), 10%가 랜드레이스(LL)이다. (주)다비육종의 모계라인을 담당하고 있어, (주)다비육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돼지의 모계통은 청암GGP라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

청암GGP는 지난 '99년 영국 종돈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육종회사인 JSR의 원종(GGP 모돈) 600두를 수입한 후 전혀 외부의 돼지 입식없이 철저한 폐쇄돈군으로 혈통을 유지·개선하고 있다. 특히 모계계통의 요크셔(YT)는 청암만의 자체 혈통을 이룩한 상태이며, 국내 실정에 맞는 높은 성적의 순종(GP)을 생산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러 품종을 수입해서 단기적으로 판매하고, 또 다른 수입종돈에 의해 품질이 변하는 소규모 종돈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청암GGP가 추구하는 육종목표는 모계 계열인 만큼 ▲증체효율 향상 ▲모돈 생산성 향상 2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선발기준으로는 ▲복당 생존자돈수 ▲등지방 두께 ▲일당 증체량 3가지를 꼼꼼히 따지고 있다.

현재 생산되는 돼지 중 수퇘지에 해당하는 50%와 선발기준에 맞지 않는 25%가 비육돈으로 출하되며, (주)다비육종에 공급되고 있는 순종(GP)는 25%, 월 200두 정도이다.

선발률이 25%로 다소 높은 것은 "우수한 품종과 철저한 방역·위생관리, 환경개선이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백영죽 대표는 자신있게 설명한다.

또 청암GGP는 철저한 품질 유지를 위해 국내 최고 두수의 농장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약 5,600두가 검정을 받았다.

종돈검정은 90kg, 150일령까지 실시되며, 검정된 돼지는 보통 160~165일령 105~110kg에 (주)다비육종으로 공급된다.

완벽한 1, 2차 차단방역 시스템

청암GGP 백 대표가 가장 농장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방역관리이다.

우수한 종돈보급의 맨 꼭대기에 있는 GGP 농장인 만큼 질병방역은 농장의 존폐를 가름하는 필수사항이다.

“미련할 정도로 원칙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백 대표의 철칙이다. 청암GGP는 앞서 말한 대로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농장 구조 또한 가파른 언덕에 1차, 2차 차단 및 소독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다. 먼저 유일한 농장 통로인 입구에 1차 차량저지 장치가 있으며 외부 사무실 옆에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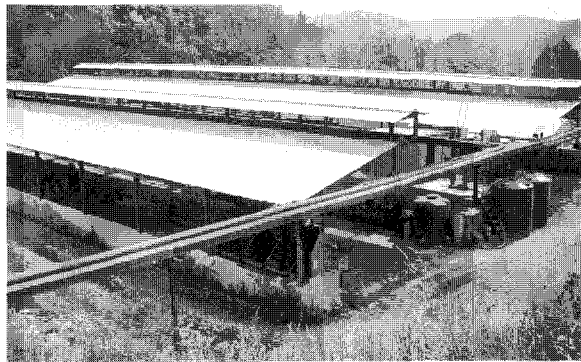
1차 소독시설을 통과하여 가파른 길을 제법 걸어가면(가깝지 않은 거리이다. 실제 필자는 농장내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2차 사무실과 소독시설이 나타난다.

2차 소독시설에서는 차량은 전체소독을, 사람은 현장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와 소독을 거치게 된다. 철조망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2차 경계선은 다른 일반농장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이며, 특히 출입자는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장, 소독장을 반드시 지나도록 구조되어 있어, 방역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청암GGP의 출하두당 약품비는 약 7,000원.



▲검정모습



▲분뇨처리장

좋은 환경 덕분에 약품비가 적게 소요되는 편이다. 약품비중 80% 이상을 백신·소독약품비가 차지하고 있다.

백 대표는 “매월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소독, 방역활동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원칙적인 관리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깊은 산 능선과 계곡 속에 묻혀 있는 A, B, C 3개 돈사는 앞 페이지 사진에서 보듯이 국내 어느 양돈장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박상범 농장장은 농장 청결, 위생상태를 묻는 질문에 서슴없이 “거짓말 좀 보태면 티끌하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오히려 파이프에 조금만 이



▲농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출하를 위한 계근대



▲출하·이동용 차량(농장내 이동)

물질이 묻으면 심할 만큼 수세를 해서 분뇨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라고 박 농장장은 웃는다.

● 국내 최초로 양돈장 HACCP 인증 추진

청암GGP는 이러한 위생적이고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통해 국내 최초로 HACCP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농장내 위생상태와 돼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인정하는 양돈장 HACCP 인증은 현재 다비육종에서 원종돈 생산농장 2곳, 종돈생산농장 1곳, AI센타 5곳을 함께 추진중에 있다.

지난 2월 14일 HACCP 발대식을 가졌다.

또 청암GGP는 방역위생우수양돈장 1등급 인증도 곧 받을 예정이다. 3월까지의 도체검사 결과와 혈청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오는 4월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원칙적인 양돈장내 방역과 청결유지에는 직원의 구성과 복지 또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농장 직원중 박상범 농장장 한 사람만이 타 농장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 경력사원이며 모든 직원들이 처음 양돈장에 근무를 시작한 20~30대의 젊은 사람들이다.

“기존 다른 농장에서 요령이나 허술한 관리를 배워오지 않은 사람들이라 철저한 관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다”며 “농장장과 이윤근 총무이사를 비롯해 전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백 대표는 이야기한다. 또 직원복지에 대한 백 대표의 노력도 크다.

지난 1년 동안 농장을 그만둔 직원이 한명도 없다. 청암GGP에서는 5대 직장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주고 있으며, 자녀 학자금까지 보조해 주고 있다.

● 철저한 관리로 차별화된 종돈장 만들어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위생관리, 많은 두수의 농장검정, 육종체계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한국 종돈보급에 한 획을 담당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청암GGP를 운영하고 있는 백 대표 또한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경제성에 안맞는 GGP농장을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도 생긴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

헬기로 사료와 기름을 날랐던 바로 그 사람 백영죽 사장



지난 2002년 여름, 우리나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던 태풍으로 산속 깊이 위치한 청암GGP는 농장내 여러 곳이 무너지고 진입 산간 도로가 크게 유실되었으며, 전기도, 전화도, 사료도, 기름도 모두 끊기는 큰 어려움을 맞았다. 이때 백영죽 사장은 무창돈사

속의 돼지 폐죽음을 막기 위해 김천시에 도움을 요청, 인근 군부대의 협조로 헬기를 동원해 사료와 기름을 공급받았다.

피해가 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지난 해 8월 30일 저녁부터 비가 와 하루 700mm 이상 퍼부었습니다. 농장으로 들어오는 4군데 길 모두가 크게 유실되어 도로가 막혔습니다.

농장 내 피해는 많지 않았습니까?

농장 내에서도 몇 군데가 무너져 복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돈사나 시설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료 공급이 끊기고 무창돈사를 가동하는 전기가 단절돼 비상 자체발전기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사료와 기름이 끊긴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항상 며칠 분량의 여분을 비축해 두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언제쯤 사료와 기름이 재공급되었습니까?

사흘 만이었습니다. 김천시에 협조를 요청해 군용 헬기로 사료와 기름을 공급받았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게 임시 복구작업이 끝나 사료차가 농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료가 딱 떨어진 날에 사료차가 들어왔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돼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자기 돼지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나도 제 돼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하게 보조를 해 달라거나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북히 한국 종돈개량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할 뿐이다”라고 백영죽 대표는 말한다.

(주)다비육종이 국내 종돈 시장의 일익(一翼)을 담당하고 있고, 돼지 육종사업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 청암GGP가 위치하고 있다.

청암GGP는 자신만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고 있다. 백영죽 대표는 소규모 종돈장을 운영해 보면서 ‘제대로 된 종돈보급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다비육종의 종돈사업에 참여하여 청암GGP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의도가 빛이 바래서는 안될 것이다. 종돈장의 위생과 청결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이 시기에 노력한 만큼 차별화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우리의 돼지 육종개량도 성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돈**